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용 식 지도교수
석사학위 청구논문

내적 상처치유를 위한 미술 표현 연구

- 본인 작품 중심으로 -

2013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관화학과

도 윤 정

내적 상처치유를 위한 미술 표현 연구

- 본인 작품 중심으로 -

김 용 식 지도교수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관화학과

도 윤 정

인 준 서

도윤정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_____①

심사위원_____①

심사위원_____①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개요

미술은 삶의 의미와 경험을 기반으로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의 한 영역이며, 동시에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언어적 기능과 미술 문화를 통하여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는 철학적 기능을 가진다.¹⁾

본인에게 미술은 시각화 할 수 없는 마음속 감정의 형태를 미술을 통해 볼 수 있는 형태로 형상화시킴으로써 내면의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를 통해 나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과의 소통까지 가능하게 하였다. 이런 경험으로 미술이 심리적인 치유에 기인 할 수 있고, 그림을 그리는 작가는 여러 가지 통합적 과정 중에 자기내면을 들여다보고 치유됨을 알 수 있었다. 미술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자아의 문제를 확인함으로써 내면의 상처와 고통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이 예술을 통해 고통을 작품으로 승화시키는 것과 유사한 것이다. 본인은 조형 활동을 통해 자가 치유를 경험하고 이것이 본인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작업한 작품을 통해 타인의 치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작업을 하였다.

본인이 기술하고자 하는 미술은 사람의 마음에 치유를 도와주는 ‘희망 미술’이다.

‘사십구재’ 연작과 ‘타인을 위한 경배’ 연작을 통해 미술의 조형성뿐만 아니라 인간의 심리적 치유 가능성과 타인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연구하게 되었다. 본인은 첫 번째 작업에서 이별의 고통 속에서 심적 아픔을 경감시키기 위해 작업에 몰두하기 시작하였다. 다른 작업에서는 모든 인간이

1) 교육 인적 자원부, 미술과 교육 과정, 대한 교과서(주),2007, p2

겪는 인간 본연의 불안 및 고통을 작품 안에 투영시켜 타인의 내적안정을 바라며 작업을 하였다. 본인은 이 두 작품을 통해 마치 고행(苦行)을 하듯 지판 위에 그리고, 찍고, 오리고, 붙이고, 쌓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본래와 다른 확장된 이미지로 나열하고 집적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인간이면 누구나 겪는 불안과 고통을 보편화된 감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고 작업을 통해 마음속 아픔을 표현하고 위로 받을 수 있었다. 본인은 미술을 함으로써 심리적 고통을 미술작품으로 승화시켜 해소할 수 있었고, 작품을 관람하는 이도 공감하여 마음이 동요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미술의 내적 상처치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하였다. 본인은 조형과정을 통해 모든 감정이 작품에 전달될 수 있었고 그로인해 마음에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또한 본인의 작품을 관람하는 사람도 동일한 마음이 전달되어 감정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업에 임했다.

이 논문은 미술을 통한 자기표현과 작품의 소통을 바라는 관람자에게 심리적 안녕[安寧]이 전달 될 수 있음을 근거로 기술하고자 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치유로써의 미술	3
1. 미술 치유의 가능성	3
1) 미술 치유의 정의	3
2) 미술을 통한 자가 치유	4
3) 미술 치유의 확대	5
2. 미술치유를 통한 고통의 해소	8
1) 인간의 불안	8
2) 대상상실과 고통	9
3) 미술을 통한 자기표현과 소통	11
III. 조형적 형식	13
1. 이미지	13
1) 사람의 형상	13
2) 탑 이미지	15
2. 드로잉과 표현기법	17
1) 드로잉	17
2) 지판그림	18
3) 지판화	19
3. 반복적 이미지와 행위	21

1) 이미지의 반복	21
2) 반복행위	22
4. 콜라주와 집적표현	24
1)콜라주	24
2)집적	25
5. 작품 설명	26
1)사십구재 연작	26
2) 타인을 위한 경배 연작	33
 IV. 결 론	 44

참고 도판

참고 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작품1】 사십구재 - 나는 빨간 사람입니다. 지판에 혼합기법. installation. 각 75 x 45 cm. 2008	30
【작품2】 사십구재 - 너 언제까지 슬퍼할래? 지판에 아크릴. installation. 각 21 x 80 cm. 2008	30
【작품3】 사십구재 -너 언제까지 슬퍼할래? 판넬에 콜라주. 혼합재료. 39 x 35cm. 2008	30
【작품4】 사십구재. 지판에 아크릴. 설치. 90 x 69 cm. 2008	30
【작품5】 사십구재. 지판에 혼합기법. 1000개 installation. 각18 x 6 cm. 2008	31
【작품6】 사십구재. 지판에 아크릴. installation. 18 x 32cm. 2008	32
【작품7】 사십구재. 지판에 아크릴. installation. 18 x 32cm. 2008	32
【작품8】 사십구재. 지판에 아크릴. installation. 58 x 17 cm. 2008	32
【작품9】 사십구재. 지판에 아크릴. installation. 38 x 50 cm . 2008	32
【작품10】 사십구재. 판넬에 혼합재료. 45 x 60 cm. 2008	32
【작품11】 사십구재. Oil on canvas. 100 x 100 cm. 2008	32
【작품12】 타인을 위한 경배. collagraphy. 78 x 107cm. 2009	36

【작품13】 타인을 위한 경배. collagraphy. 78 x 107cm. 2009	36
【작품14】 타인을 위한 경배. collagraphy. 78 x 107cm. 2009	36
【작품15】 타인을 위한 경배. intaglio. variable installation. 2009	37
【작품16】 타인을 위한 경배. collagraphy on Korean paper. variable installation. 2010	38
【작품17】 타인을 위한 경배. collagraphy on Korean paper. variable installation. 2010	38
【작품18】 타인을 위한 경배. collagraphy on Korean paper. 10 x 10cm. 2010	38
【작품19】 타인을 위한 경배. collagraphy on Korean paper. 10 x 10cm. 2010	38
【작품20】 타인을 위한 경배. collagraphy on Korean paper. 245 x 420cm. 2010	39
【작품21】 타인을 위한 경배. collagraphy on Korean paper. 149 x 208cm. 2010	40
【작품22】 타인을 위한 경배. collagraphy on Korean paper. 208 x 149cm. 2010	41
【작품23】 타인을 위한 경배. collagraphy on Korean paper. 100 x 70cm. 2010	42
【작품24】 타인을 위한 경배. collagraphy on Korean paper. 80 x 56m. 2010	42
【작품25】 타인을 위한 경배. drawing on Korean paper. 30 x 30cm. 2010	48

【작품26】 타인을 위한 경배. drawing on Korean paper .	
30 x 30cm. 2010	48
【작품27】 타인을 위한 경배. drawing on Korean paper .	
30 x 30cm. 2010	48
【작품28】 타인을 위한 경배. drawing on Korean paper .	
30 x 30cm. 2010	48

참고 도판 목차

[도판1]빌렌도르프의 비너스	46
[도판2]프로그네르(비젤란) 조각공원	46
[도판3]모노리텐. 화강암 군상.173m. 1917~1924	46
[도판4]마이산 돌탑	46
[도판5]자코메티 드로잉	47
[도판6]점으로부터. 1978	47
[도판7]선에서. 1979	47
[도판8] Pollen from hazelnut.1986	48
[도판9]아직 태어나지 않은. 1996	48
[도판10]길의 무게. 1996	48

I. 서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살아간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소외당하고 만족하지 못할 때 불안과 고통, 좌절을 느끼게 된다. 이는 육체적인 목마름이나 배고픔과 또 다른 정신적, 심리적인 공허함에 기인한다. 즉, 관계의 상실을 통해 자신도 알지 못하는 근원적인 불안과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무의식에 내재된 이러한 불안과 고통을 완전하게 해결하기는 어렵다. 보통 자신이 해결하기 어려운 고통이 찾아오면 인간은 심리학적으로 알코올 중독이나 성 중독증등과 같은 중독 증상을 보이는데 본인은 그리기, 찍기, 오리기, 붙이기를 반복하면서 이미지를 나열하거나 집적하면서 고통을 투영해 작업을 하였다. 이렇게 무수한 반복적 행위를 통해 미술로써 심리적 안정과 위안을 얻을 수 있었다.

예술가는 직관을 통해 비가시적인 것을 가시적인 것으로 전환하여 무의식과 대면하여 예술을 통해 자신의 고통을 해소해 미술을 통한 치유를 경험하게 된다.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 1866~1944)는 “예술은 공허하게 사라질 사물을 맹목적으로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목적을 갖고 있으며, 인간의 영혼을 발전시키고 순화시키는 데 기여한다.” 고 하였다²⁾.

본인 역시 이별을 통한 대상상실의 고통을 경험 했으며 이것이 멜라니 클라인(Melanie Klein, 1882~1960)이 말하는 인간의 대상 상실의 고통에 포함된다. 이 고통은 자아를 붕괴하는 심적 고통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인은 미술을 통해 표출하기 어려운 내면을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먼저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하였다. 즉, 사물의 외형을 관찰해 보고 이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관찰하고 내면의 울림에서 영감을 얻어 작업하였다. 사람의 깊은 곳에 있는 근원적 고통의 이야기를 하나의 형상 또는 개체로 구체화 하고 이를 작업을 통해 순화하는 ‘행

2) 칸딘스키. 예술에서의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열화당. 2000. p128

위' 에서 출발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미술치료에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미술 과정과 작품을 매개로 사용한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본인의 작업은 분리 불안이 내면에 잠재되어 있다가, 이것이 외적으로 표출되는 상황을 마주할 때 겪게 되는 고통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치유과정이라 할 수 있다.

본인은 상실의 고통을 사십구재(2007~2008) 작업을 통해서 해소하였다. 또한 사십구재 작품을 통해 관람자들까지 소통을 통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마음이 동요된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작품인 타인을 위한 경배(2009~2010)에서는 작품을 통해 관람자들의 마음까지 움직인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작업하였다. 이것은 본인을 비롯한 모든 인간의 고통이 미술로서 치유되어 마음에 평안을 바라는 작업이다. 본인은 미술치유를 근거로 이 두 작업을 작가와 관람자 모두 미술을 통해 고통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심리적 안녕(安寧)' 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연구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논문의 전개 방식 있어서 II장에서는 작품의 내용에 근거가 되는 미술 치유와 미술치유의 확대, 치유를 통한 고통의 해소로 불안과 고통, 그리고 미술을 통한 자기표현과 소통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이를 근거로 하여 미술이 주는 치유를 주제로 한 본인의 작품 동기에 대해 기술하고 III장에서는 미술치유를 주제로 본인의 작품 '사십구재' 와 '타인을 위한 경배' 를 통해 이미지, 드로잉과 표현기법, 이미지의 반복과 반복행위를 살펴 볼 것이고, 콜라주와 집적표현, 작품설명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IV장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미술치유에 이론적 배경과 창작 행위 속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미술치유의 의미와 논문을 쓰면서 느낀 점, 작업과정을 통해 본인이 지향하고자 하는 작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치유로서의 미술

1. 미술 치유의 가능성

1) 미술 치유의 정의

미술 치유는 미술 분야와 심리학 및 정신분석학을 섭렵하는 통합적 치료 방법이다. 즉, 미술 치유는 미술적인 자기표현에서 보이는 창조 과정을 통해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대인 관계 기술을 발달시키며 행동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자존감과 지각을 증진시키고 통찰을 얻는데 도움을 준다.³⁾ 여러 형태의 미술 작업은 괴롭고 고통스러운 정신 내면에 있던 감정이 바깥으로 표출되면서 정서적 환기를 가능하게 한다. 또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외상적 경험이나 감정을 부담 없이 이미지를 통해 표현할 수 있게 한다.

미술 치유는 존재하는 세계와 개체 사이의 실존하는 고통을 심상 이미지로 표현했던 선사시대의 동굴 벽화에 그 역사적인 근원을 둔다. 이는 순수미술을 증진시키려는 목적보다는 미술을 도구로 미술 내부에 숨겨진 근원과 자원을 찾아 인간의 이해와 성장을 추구하는데 있다.

미술 치유는 그림을 그리는 통합적인 과정 속에서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치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좋은 방법이다. 즉, 이미지를 통해 자아를 확인하고 상처와 고통을 극복함으로써 하나의 완성된 인격체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한다. 이렇기에 미술 치료는 자아를 강화 하고 성숙을 촉진시키는 좋은 방법이다. 본인에게 미술은 무의식에 내재된 불안과 고통을 대면하고, 그것을 작품을 하는 과정 에서 예술적 표현뿐만 아니라 치유로서의 접근

3) <http://www.arttherapy.org> 참조

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무의식을 미술 표현과 같은 비언어적 형태의 의사소통을 사용하여 언어로는 표현 할 수 없는 생각과 감정의 표출구가 되어 무의식, 표출되지 않은 사고, 감정을 표현하는 길을 열어준다.

2) 미술을 통한 자가 치유

미술이란 ‘볼 수 있는 형태로 무엇인가 나타나도록 창조 하는 것’이다. 즉 이미지를 통해 시각화 하며, 보이지 않는 내면을 형상화 시키는 가장 안전한 도구가 된다. 미술은 복합적인 내면의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부담 없는 수단으로, 이미지로 표현되는 승화과정에서 응집되었던 감정이 소화되어 작가의 자아기능이 향상된다.

미술 치유의 장점은 첫째, 이미지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꿈, 환상과 같은 내적 경험은 언어적인 형태 보다는 이미지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므로 언어를 사용하여 표현하기보다 이미지로 표현할 때에 더 직접적인 표현이 가능하다. 또한 이미지는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큰 영향을 준다. 둘째, 비언어적이며 감각적인 자료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언어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미술은 언어가 아닌 감각적 통로가 된다. 셋째, 방어가 완화 된다. 말을 할 때에는 생각이 많아지거나 머릿속에서 할 말을 고를 수 있는 반면에 무의식적 자료를 그림으로 투사 하게 되면 언어를 사용했을 때보다 더 쉽게 내적 검열을 피할 수 있다. 넷째, 미술작품을 통해 자신을 객관화, 대상화 할 수 있다. 객체가 된 미술작품은 그것을 만든 사람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객관화, 대상화되어 그리고 마치 거울처럼 작가를 투영하게 된다.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며, 무엇을 원하고 어떤 갈등이 있는지 작품에 녹아서 표현되므로 작가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자기모습을 바라볼 때 더 대상화해서 거리를 두고 볼 수 있게 된다. 다섯째, 전이의 해소가 용이하다. 여섯째, 미술작품은 지속가능하므로 치료와 변화의 순간을 보존해 준다.⁴⁾

4) 주리에. 미술치료학. 학지사. 2010. p34-38

대상관계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예술치료에서는 예술은 흔히 대상상실을 대처하는 중간기능으로 본다. 결손된 대상관계 때문에 미처 펼쳐지지 못한 예술가의 고통, 상실 소외감 등의 표현을 경험하고 대상의 미묘한 표현을 상징적 표상이 새로운 의미의 세계로 옮겨가 대상의 다양하고 찢겨짐과 쪼개진 부분 등이 미술작품으로 시각화됨으로서 실제로 매만져지게 된다고 하였다.⁵⁾

많은 학자들은 미술을 창조하는 것이 인간의 정신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말한다. 본인은 사십구재 작업을 통해 통합적인 과정 속에서 자기의 무의식을 들여다보고 치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는 좋은 방법인걸 알게 되었다. 즉, 이미지를 통해 자기를 확인하고 상처와 고통을 극복함으로써 하나의 완성된 인격체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은 것이다. 본인은 이 작업에서 동일한 '나' 라는 1000개의 이미지를 만들어 계속 반복표현 하는데, 이러한 행위가 미술 치유에서 중요하게 여겨진다. 이미지의 반복은 마음의 상실로 인해 허(虛)하고, 고통스러운 감정을 미술 작업으로 해소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것은 미술치료에서 위로받고 싶을 때 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이런 반복된 이미지는 각각의 객체에 에너지의 형태로 있다고 응집되어 본인의 고통을 한꺼번에 상쇄(相殺)시킨다. 본인은 이 작업을 통해 대상 상실의 아픔으로 인해 붕괴된 자아를 무의식 깊은 곳에서 마주하고 의식 밖으로 표출하는 작업을 했다. 아픔이 밖으로 표출되므로 치유되고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하고 건강한 삶을 희망하게 되고 나아가 다른 이들의 고통까지 바라보게 되었다.

3) 미술 치유의 확대

예술이 진정으로 극복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하려면 단순히 시각적으로만 즐겁다거나 작품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 울림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그 울림이 비록 미세한 미동일 지라도 그것이 바로 좋은 작품이라 말 할 수 있겠다. 세월이 흘러도 소위 명화라고

5) 김진숙. 샤머니즘과 예술치료. 학지사. 2010. p69

불리며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은 주는 작품들이 바로 그렇다. 마치 그림 앞에서 자신의 기를 압도당할 때처럼 말이다. 이러한 예술의 힘을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 1892~1940)은 “예술작품의 유일무이한 현존성, 아우라(Aura, 독특한 분위기)” 라고 한다.⁶⁾

좋은 그림 앞에 섰을 때, 그 그림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본다. 색으로 전달한 마음이 바라보는 마음에 와서 잔잔히 부딪히고, 소리 없는 외침 같은 선들은 그 선을 따라가는 시선과 결합하여 무게를 지닌다. 그림 속 강물은 고요하게 흐르고, 그림 속 하늘은 캔버스 안팎을 구분 하지 않고 넓게 퍼지고 확장된다. ⁷⁾ 좋은 그림 앞에서 느끼는 그 울렁거림은 과거부터 지금 까지 일반인들이 미술을 찾는 이유일 것이다.

불안이나 고통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한다. 어떤 이는 영화를 보면서 어떤 이는 음악을 들으며 자신의 감정을 다른 것에 이입시켜 해소시키려 노력한다. 이것은 마치 마음이 아플 때 슬픈 영화를 보며 평평 눈물을 흘리면 어느새 마음 한편이 후련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이것을 공감이라 할 수 있다. 공감이란, 말하자면 두 개의 소리굽쇠가 약간 떨어진 상태로 있으면서 먼저 울리는 소리굽쇠의 파장으로 인해 옆의 소리굽쇠까지 함께 공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울리는 내용은 정서적인 것과 인지적인 것, 지각적인 것, 혹은 신체적인 것까지 다양할 수 있다.⁸⁾ 우리는 상대방의 경험을 충분히 알 수는 없고 혹여나 객관적 사실을 안다하더라도 상대가 경험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누구나 다 경험 수 있는 보편적인 불안이나 고통은 공감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인은 미술작품이 공감을 토대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소통의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한다. 간혹 사람들은 미술 작품을 관람할 때 의도하지 않았는데 작가의 경험과 관람자의 경험이 심리적으로 투사적 동일시 될 때 작품을 통해 위로

6) 발터벤야민의 문예 이론, 반성완 편역, 민음사 ,2006, p202

7) 주리에. 미술치료학. 학지사. 2010. p103

8) 주리에. 미술치료학. 학지사. 2010. p127

를 받거나 고통의 감정이 상쇄 됨을 느낀다. 즉 작품과 관람자의 소통을 통해 공감에 생겨 관람자의 무의식 안에 숨겨진 마음이 작품에 투영되어 일어나는 일이다. 이것이 본인이 말하는 미술치유의 확대 개념이다.

본인은 조형 활동을 통해 인간정신이 승화된다고 보고 예술의 본래적 특성인 작품 속에 인간 내면의 정서를 표출함으로서 자가 치유와 타인의 치유까지 도모할 수 있음을 본인 작품을 통해 제시하였다. 첫 번째 작품인 '사십구재' 작업을 통해 깊은 무의식 속에 있는 자아와 대면함으로서 불안과 상처, 고통을 밖으로 분출했고 그로 인해 자아가 강화됨을 인지하였다. 또한 작업 안에 투영되어 있는 고통 때문에 작품을 관찰하는 관람자도 무의식 깊은 곳에 숨겨 두었던 고통과 대면해 감정이 상쇄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두 번째 작품은 '타인을 위한 경배'이다. 미술이 가지는 치유적 가능성을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확대함으로서 나와 사람들을 이해하고 본인뿐 아니라 관람자들이 작품을 통해 심리적 안녕을 얻길 바라는 작업이다. 타인을 위한 경배는 고통이나 삶의 애환으로 물든 인간의 이미지들로 탑을 쌓아 좀 더 나은 삶을 갖도록 기원하는 의미의 작업이다. 이것은 인간의 고통을 넘어선 희망을 그리는 작업이다. 본인은 공유 개념의 소통으로 같은 경험을 한 본인과 관람자가 심리적 동일시를 이루어 소통을 하고 그것이 관람자에게 치유를 가져온다고 가정해 보는 작업이다. 결국 미술작업을 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만 치유가 되는 미술치유의 개념이 아닌 본래 미술이 가지고 있는 소통의 개념으로서 미술을 관람하는 자도 미술작품을 통해 치유를 경험한다는 것이다.

작품에 대한 공감과 투사적 동일시, 공격적 에너지를 중성화 시키고 변화시키는 과정으로서 승화, 창조과정은 모든 인간이 작품을 대면 할 때에 무의식 깊은 곳에 있는 고통이 내면의 울림을 통해 해소하게 만드는 것이다. 관람자가 미술작업에 직접 참여 한건 아니지만 '이미지를 통한 통찰'로서 관람자도 작품 속 연구자의 고통과 반복적 행위가 투영되어 치유의 과정을 같이 체험하게 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즉 치유를 통한 확대란 작품을 만드는

본인뿐 아니라 본인의 작품을 관람하는 관람자들이 본인이 작품 속에 쏟아 부은 고통과 아픔을 소통하고 공감을 통해 마음에 평안을 갖게 되는 가능성을 본 것이다.

2. 미술치유를 통한 고통의 해소

1) 인간의 불안

불안이란 특정한 대상이 없이 막연히 나타나는 불쾌한 정서적 상태로 안도감이나 확신이 상실된 심리 상태를 말한다. 불안은 자신에게 닥칠 위험이 가능성으로 존재하여 자신의 안전이 깨어질 것이라 느껴질 때 발생하는 두려운 감정의 일종으로 두려움은 원인이 되는 위험물이 있지만 불안에는 그런 것이 없다. 그러므로 불안은 상상된 위험물에 대한 반응이고 주관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불안’이란 감정은 어디서 발생하는 것일까? 인간의 삶은 모태로부터 시작된다. 즉 어머니와 하나의 존재였던 것이 출산과 동시에 둘로 나뉘게 되면서 자아 자신이었던 존재가 타자가 되어 버린다. 처음으로 혼자가 되어 버린 인간은 감당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마음속 깊은 무의식에 남긴 채 살아간다. 이로 인해 인간은 실존이란 문제를 직면하게 되고 불안과 고통을 느끼게 된다.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 1856~1939)는 ‘불안’의 원인을 ‘출산행위’에서 찾고 있다.

우리는 불안 감정의 경우, 어릴 때의 어떤 인상을 되풀이 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것은 '출산행위(Geburt sakt)'라 할 수 있다. 분만때의 불쾌감, 출산의 흥분 및 육체 감각의 집약화가 한꺼번에 나타난다. 이것이 생명의 위협에 직면하는 모든 경우의 원형이 되는 것으로, 그 이후로 불안 상태로써 우리에게 되풀이 된다. 출생 당시 새로운 혈액의 공급 중단에 의한 심한 자극의 증가는 불안을 체험하는 원인이었다. 그러므로 최초의 불안은 독

성을 가진 것이었다. 불안이라는 말은 호흡이 좁아진다는, 출산 때에 현실적으로 보는 상황의 결과로서 현존하는 특징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감정 속에서 거의 언제나 되풀이 되고 있다. 또한 이 최초의 불안 상태가 어머니한테서 떨어졌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 깊은 일이다. 최초의 불안 상태를 반복하는 인간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세대의 계열을 지나서도 유기체에 깊이 뿌리박고 있으므로, 설령 전설의 맥더프처럼 ‘어머니의 배를 가르고 나와서’ 분만 행위 자체를 경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각 개체가 불안이라는 감정을 피할 수 없다는 우리의 확신은 당연한 것이다.

이와 같이 프로이드는 ‘출산행위가 불안 감정의 원천이며 원형’이라 기술하고 있다. 인간은 모태에서 탄생하였고 그곳으로부터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회귀 본능을 가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알 수 없는 그리움의 감성, 그리고 대상 없는 갈망 등을 내면에서 경험하게 된다. 즉, 구체적인 대상이 없는 것으로부터 불안은 생성된다.⁹⁾

2) 대상상실과 고통

대상관계심리학은 전통적인 정신 분석학에서 보는 욕동중심의 인간정신을 관계중심으로 발전시킨 신프로이트학파로서 멜라니 클라인(Melanie Klein, 1882~1960)이 선구자이다. 대상관계 심리학에서 ‘대상’이란 개인의 리비도가 투자된 사람뿐만 아니라 주위의 대상이나 사물을 의미한다.

클라인은 대상 상실을 우울적 자리로 설명을 한다. 유아가 점차 발달함에 따라 엄마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좋은 측면과 나쁜 측면 모두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고 유아가 가지고 있던 전능의 환상이 깨짐을 발견하게 되어 죄책감을 갖게 된다. 이는 더욱 우울한 상태로 빠져들게 한다. 이를 클라인은 우울적 자리라 한다. 이런 우울한 상태에 들어간 유아는 자신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엄마를 공격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 많은 죄책감을 갖게 되고, 이는

9) 지그문트 프로이드. 정신분석학 입문. 꿈의 해석. 김양순 옮김. 동서문화사. 2007. p375~376

유아를 더욱 우울한 상태로 빠져들게 한다. 이렇게 죄책감을 느끼면서 유아는 최초로 성숙함에 길에 들어서는 아픔의 과정을 겪게 되고 이 우울적 자리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아가 좋은 내적인 대상으로 풍성해지며, 이 풍성한 자아가 승화와 창조적 노력을 위한 주요 원천이 된다고 보았다. 성인이 대상 상실에 고통을 성공적으로 애도하고 잘 극복 했을 때도 이와 마찬가지로 자아가 풍성해 질 수 있다.

성인이 된 후 대상 상실은 고통 속에 애도 과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외부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현실감 확인이라고 보았다. 이 현실감 확인이 외적 세계에서의 상실의 재발견과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내적 세계와 그리고 상실한 사랑하는 사람과 동일시된 자신의 근원적 내적 대상의 상태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즉, 유아기 내면세계에 좋은 엄마의 상을 이룩한 사람은 큰 어려움 없이 성인이 되었을 때 상실한 대상을 떠나보내고 새로운 대상을 향해 리비도를 사용할 수 있게 되지만, 유아기 때 좋은 내적 대상을 형성하지 못한 사람은 성인이 되었을 때 대상 상실의 애도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멜라니 클라인은, 성인의 삶에서 사랑하는 대상이 사라지는 것이 애도하는 사람 안에 있는 우울적 자리의 갈등을 일깨운다고 말한다. 우울적 자리에서 유아가 느꼈던 것처럼 좋은 내적 대상을 잃어버리는 위험에 처해 있다고 느낀다. 이때 인간은 초기 편집적 고통과 우울적 고통에 노출된다.¹⁰⁾ 이 애도 과정에서 상실의 고통에 대한 방어로서 무의식적 경멸과 승리감이 활성화 될 수 있다. 이것은 다시금 죄책감을 증가시키고 자신의 마음속에 상실된 사람을 좋은 내적 대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어렵게 만들며, 결국 고통과 애도의 기간이 길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¹¹⁾

10) 임인경. 대상 관계이론에 비추어 본 미술치료에 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2004. p16

11) 한나 시겔. 이재훈 역. 멜라니 클라인의 정신분석학. 한국 심리 치료 연구소. 1979

3) 미술을 통한 자기표현과 소통

인간은 살아가면서 상실에서 오는 불안과 좌절 고통을 느낀다. 본인에게 이런 슬픔의 고통을 안타까워하며 밖으로 표출 하는 방법은 미술이다.

대상관계 심리학자 위니콧(Winnicott, 1896~1971)은 예술가는 상실한 '대상'을 상징적으로 안전한 장소에서 재창조 하는데 정신적인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지난날의 상처가 치유되고 미래에 대한 공포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다고 보았다.¹²⁾ 즉 대상관계 심리학에서는 미술치료에서 창작 미술을 통해 자아와 대상이 확실하게 연결 된다고 보고 있다.

본인에게 있어서 대상을 재창조하기에 안전한 장소는 미술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좌절, 상실, 불안, 고통은 어느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것으로 삶과 늘 동행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만큼 인류가 처음 생긴 이래로 늘 함께 해왔다. 사람들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오면 어떻게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까? 본인은 고통을 이겨내는 방법으로 미술작업을 택했다. 고통을 이겨내는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예술은 인간의 마음을 담아내기에 좋은 그릇이다. 이것은 인간이 예술을 통해 마음의 짐을 투사 시켜 마음의 고통을 덜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이렇게 마음의 고통을 예술로 덜어내고 새로운 삶을 갈망하는 이것을 희망이라 말 할 수 있다. 즉 본인은 예술을 고통 속 '희망의 작업'이라 생각한다. 희망은 심리적 안녕, 신체적 건강, 학업수행, 운동수행, 심리치료 및 상담의 성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인은 미술을 통한 심리 치유와 그로 인해 오는 평안을 기원하는 희망 작업을 하고 있다.

예술로서 고통을 해소하는 것 그 자체가 고통에서 벗어나 더 좋은 삶을 살고자 하는 희망 메시지인 것이다. 희망이 높은 사람들은 신체적 고통을 더 잘 인내 하고, 스트레스 반응에 대해서도 더 빠른 회복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¹³⁾ 모든 인간이 고통에 처해 있을 때 긍정적 희망을 갖게 되면 빠른 회복을 가져 온다고 한다. 본인은 미술을 통한 자기표현으로써 사십구재연작과

12) 김진숙. 샤머니즘과 예술치료. 학지사. 2010. p68

13) Snyder, Odle, and Hackman, 1999: Snyder, Taylor et al., 2001

타인을 위한 경배연작을 해왔으며 이 두 작업의 과정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나아가 타인을 돌아보는 미술의 긍정적인 힘도 알 수 있게 되었다.

Ⅲ. 조형적 형식

1. 이미지

이미지가 알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은 이미지가 그려진 최초 순간부터 생겨났다. 이러한 믿음 때문에 이미지의 힘을 두려워하는 일부사람들은 이미지를 배척했기도 했지만, 이미지는 탄생의 순간부터 지금까지 경배의 대상이 되어왔다. 현대에 오면 이미지의 힘은 다양하게 정의 된다. 어떤 이는 ‘아우라(aura)’라고 정의 했으며, 어떤 이는 이것을 ‘푼크툼(punctum)’이라고 정의 했다. 이러한 정의의 기본 개념은 이미지가 은폐된 실재에 마주 하도록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이다. 종교의 차원에서 보면 아마 신과의 조우일 것이다. 예로부터 종교는 이미지를 신과 인간의 매개체로 이용해 왔다. 그렇다면 속세의 차원에서 보면 본인의 이미지는 이 무엇과의 만남을 가져오는 것일까? 본인은 이미지를 통해 본인뿐 아니라 작품을 관람하는 모든 사람들을 고통과 마주하게 한다. 14)

1) 사람의 형상

신체를 대상화한 최초의 예술 작품으로 원시 미술에서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도판1)를 들 수 있다. 원시 시대의 나타난 인체에 대한 묘사는 주로 의식과 제례에 다산 목적으로 한 주술적 염원에서 비롯 되, 신체의 거의 모든 부분의 묘사를 간략하게 생략하고, 유방과 둔부를 과장되게 표현 하고 있지만, 관능 적이거나 성에 대한 수치, 억압은 가지고 있지 않다.

또 다른 신체를 대상화한 구스타브 비젤란(vigeland Adolf Gustav 1869~1946)은 인간의 나상을 유일한 표현수단으로 사용한 노르웨이 조각가다. 비젤란은 인류

14) 김연주. ‘타인을 위한 경배’ 도윤정 개인전 전시도록 중 인용. 2010.

의 보편적 원리로서 인생 순환 개념을 미술 영역에 끌어들여 작업한다. 그의 프로그네르 조각 공원의 작품(도판2)에서 인간의 순수하고 본질적인 알몸을 형상화해 작업한다. 그에게 알몸 형상은 의복에 의한 개인의 사회적 지위나 가난하고 부함의 차이를 떠나 모든 인간을 보편화하는 그의 정신을 담은 것이다.

본인이 사람의 형상을 작업하는 이유는 사람의 형상을 그릇화하여 고통을 담아 심리적 치유의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형상은 돌탑의 돌처럼 모든 인간의 평안을 비는 의식(儀式)에 매체가 된다. 첫 번째 작업 사십구재에서는 ‘나’ 를 이미지화 하는데 이것은 이미지형상을 통해 무의식 안에 있는 나와 대면한다. 수없이 반복해 만든 ‘나’ 란 이미지에 모든 고통을 투영시킴으로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본인만의 의식(儀式)에 사용되는 형상인 것이다.

‘나’ 란 이미지에 고통을 담아 본인도 모르는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모든 감정을 표출 시킨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 고통을 모든 인간이 느끼는 보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결국 본인 이미지를 예술매체에 투사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며 유연한 대상으로 존재하게 됨으로써, 내적 대상관계가 회복되고¹⁵⁾더 나아가 타인의 마음까지 돌아보게 되는 것이다.

사십구재 작업을 마친 뒤 본인은 모든 인간이 고통의 감정에서 해소되는 작업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필요한 이미지가 인간의 고통을 담을 그릇이었는데 이 그릇의 부합하는 이미지를 알몸형상으로 제시 하였다. 이것은 위에 빌렌도르프의 비너스에서 말하듯 본인의 의식(儀式)에 쓰이는 그릇 역할의 대상으로 성적이나 억압의 도구는 아니다. 본인은 모든 인간의 알몸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이것은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 아무 옷도 걸치지 않은 순수한 본질, 마음속에 사사로운 욕심이나 불순한 생각이 배여 있지 않은 알몸의 상태로 세상에 나오기 때문이다. 이런 순수한 알몸의 형상 속에 인간의

15) 김진숙. 샤머니즘과 예술치료. 학지사. 2010. p71

무의식 저편에 깊이 묻어 놓은 모든 인류의 보편적 고통을 담는 것이다. 이것은 알몸 형상에 고통을 담아 인간의 안녕을 비는 속세에 바쳐질 제물 같은 요소이다.

존 버거(John Berger, 1926~)16)는 알몸이 된다는 것은 순수한 본래의 자기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본인은 가장 순수한 알몸을 표현함으로써 무의식속 자아를 형상화함으로 내안에 자아와 대면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그 무의식에서 끌어올린 순수한 개체의 자아를 탐의 형상으로 집적 하면서 개체 하나 하나의 순수한 원초적인 에너지를 쌓아 감정을 폭발시킨다. 이렇기에 관람하는 이 들까지도 감정이 해소되고 정화됨을 느끼는데 이것은 관람자가 알몸의 이미지를 통해 무의식 안에 있는 고통 속 자아와 대면하기 때문이다.

사십구재의 인간 형상과 타인을 위한 경배의 알몸형상은 미술을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강한 소망으로 만들어진 이미지이다. 이것은 고통에서 벗어나 심리적 안녕을 기원하는 인간 속세에 바쳐질 제물 같은 요소로 모든 인간의 고통을 투영시킬 그릇으로 사용된다. 또 좀 더 인간 근원의 모습으로 다가가 세상에 태어날 때의 백지 상태와 같은 순수한 모습으로 평안의 삶에 다가가기 위함이다.

2) 탐 이미지

이미지는 무의식에서 생겨나 우리가 내면세계를 이해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 다른 신체 언어인 우리의 감각과 인식에서 생겨나 우리의 예술 작품 과정과 이미지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 줌으로써, 우리는 미술이라는 매체를 활용하여 내면세계와 외부의 현실 사이에 다리를 놓을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구스타브 비젤란(vigeland Adolf Gustav 1869~1946)은 나체 조각을 이용해 기념비 적인 대표작 모노리텐(도판3)을 만든다. 그는 모노리텐

16) John Berger. Way of seeing. 서울: 동문선. 1993. p82

에서 인간을 이해하고 희망으로 가득 찬 강건하고 순수한 인간의 나체 형상을 탑 이미지로 쌓으므로 보편적인 인간의 삶을 작업으로 나타냈다. 그는 인간의 삶을 깊이 이해한 작가이며, 내면의 심층적인 감정을 작업에 담으려고 노력한 조각가이다. 모노리텐은 그의 주제인 인생 순환이 응집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는 작품이다.

탑 쌓기는 모든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인류의 전통적 의식이다. 한국문화에서 탑 쌓기의 기원은 거석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며 후대에는 불교에 영향을 받아 변화되었다. 탑은 스투파(stupa)의 번역이다. 불탑은 부처를 상징하는 것으로 예경의 대상이다. 한국에서는 세계 유래에서 찾아보기 힘든 거석문화의 영향 때문인지 불교의 도입이후 석탑의 건조에 치중하여 많은 문화유산이 남아있다. 그러나 불탑 이외도 민간신앙차원에서 탑을 쌓는 돌탑(도판4) 풍습이 있다. 한국뿐만 아니라 몽골, 티베트 등지에서도 전통적으로 돌을 정성껏 쌓아 소원을 기원하는 문화가 있는데 연구자는 이런 민간에서 쌓았던 돌탑에 관심이 있다. 이런 탑 쌓기는 종교적인 측면도 있지만 보다 소박하고 나약한 인간들의 바람으로 정서적인 측면이 강해 관객과의 소통을 용이 할 수 있게 해준다.

본인이 돌탑 이미지를 사용한 이유는 첫 번째, 돌탑은 산에 가면 흔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친숙하고 종교와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돌을 얹으며 안전과 평안을 기원할 수 있다. 둘째는, 풍수적인 역할로 위험한 곳에 돌탑을 세워 보안하는 비보(裨補)이다. 본인은 비보와 같이 고통을 담은 탑 이미지의 작업을 통해 고통의 해소를 기원하는 마음을 작업에 담는다. 셋째는 마을 안과 밖을 소통하기 위해 마을 어귀에 돌탑을 세우는데 본인도 이런 돌탑의 역할을 작품에 담아 본인 작품이 있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작품과 소통이 되어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을 누리길 희망한다.

이렇게 탑 이미지를 통해 인간이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보편적 불안이나 고통을 이미지에 투사시켜 해소하길 바라고 작품 안에 오랜 시간 쏟아 부은

많은 공정과정과 수없이 반복된 형상들을 통해 관람자들의 마음까지 만져지고 탐 이미지로 만든 작품 속에 관람자들의 불안과 고통을 다 던져 넣어 사그라지길 바라는 것이다. 결국 돌탑 이미지를 이용해 모든 이에게 아무 탈이나 걱정이 없이 평안함을 얻고자 함이다.

2. 드로잉과 표현기법

1)드로잉

드로잉은 회화의 기초개념이다. 드로잉은 일반적으로 연필이나 펜 등을 사용하여 대상의 윤곽을 선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직접적인 표현으로 감정을 표출하는 가장 신속하고 경제적인 방법이라는 특징을 가진 드로잉은 현대미술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전개 된다. 하나는 원초적 행위로서의 드로잉이고, 다른 하나는 작품의 완성되기 이전의 밑그림이나 제작과정으로서의 드로잉이다. 위의 첫 번째 원초성의 의미는 자유로운 미술 제작의 태도뿐만 아니라 실제의 형성 활동인 외적 표현과 내면세계부터 일어나는 생각인 내적 표현이 모두 가능 하다는 것이다.

융(Carl Jung, 1875~1961)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개인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 가장 깊은 층에 원형(archetype)이 침잠되어 있고, 여기에서 예술 작품이 나온다.” 고 하였는데 이것은 내적인 표현을 외적 표현에 실어 무한 자유를 표현하는 것이라 주장 하였다.¹⁷⁾

드로잉은 개인적 인격을 서술하고 인식하는데 목적이 있으며,¹⁸⁾ 무한한 확장성을 지닌다. 현대 미술 가들의 경우, 자신들의 순간적인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드로잉을 제작하는 사례가 많다. 하나의 예로 조각가 알베르토 자코메티(Alberto Giacometti, 1901~1966)는 아주 단단한 연필을 이용하여 철에 새긴 듯,

17) 윤현섭, 예술심리학. 을유문화사. 1982. p56

18) 김복영, 현대미술연구. 정음문화사. 1985. p43

한 선에 의한 특이한 양식의 드로잉을 창출해냈다. 인간의 실존적 숙명을 드로잉의 간결하고 장식 없는 선으로 표출해낸 그의 드로잉 작품들은 딱딱한 기법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인 멋을 조금도 잃지 않고 점차로 주관적이고 내면적인 성격을 강조하게 된다. 즉 드로잉은 작가의 심상(心像)에 감관과 동일시되는 메시지의 전달 수단이 된다. (도판5)

본인의 드로잉은 작업 밑그림이나 준비 단계로써 드로잉이 아닌 그 자체가 완성된 작품이다. 이렇게 본인에게 드로잉이 중요한 이유는 가느다란 섬세한 선에 인간의 주관적인 미묘한 감정을 간결하게 표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인은 이런 드로잉 작업을 통해 인지하지 못하는 무의식속 대상의 형태를 빠른 시간에 왜곡의 과정 없이 고스란히 전달 할 수 있었다. 즉 드로잉은 본인의 체험 속 감정을 여과 없이 표현해 주기 때문에 감정을 전달해 해소 하는 좋은 도구가 된다. (작품 16,17)

2)지판그림 - 나이프 드로잉(knife drawing)

본인의 작업은 빠르게 하는 드로잉과 내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감정을 어떻게 전달하고 표현하는지를 중요시 여겼던 표현주의¹⁹⁾적 성향이 강하다.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에 캔버스는 답답함을 느끼게 했고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 지판위에 나이프 드로잉을 하기 시작 했다.(2007~2008) 직접적으로 캔버스 위에 붓으로 빠른 시간에 드로잉 하는 작업은 처음 시작되는 감각적인 지점을 지나쳐 버리기 일 수였고 다른 곳에 드로잉을 먼저 그려 커다란 캔버스에 옮겨 그린다고 해도, 옮겨진 후 채색하는 과정에서 드로잉의 원초적인 긴장감과 미묘한 감각적인 힘은 점점 약해지고 드로잉 선 안에 들어가 있는 감정들이 사라져 버리는 문제가 생겼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본인은 처음에 느꼈던 감성 그대로의 드로잉을

19) 표현주의: 20세기 초 독일을 중심으로 일어난, 주관적인 감정과 반응을 표현하는 예술 사조. 인상주의와 자연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일어났으며 회화에서 키르히너, 칸딘스키 등이 주창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후에는 문학, 음악, 연극, 영화 분야까지 확대되었다.

두꺼운 하드보드(hardboard)위에 한다. 하드보드 위에 나이프 드로잉(knife drawing)한 후 코팅을 하고 나이프로 판 홈에 물감을 넣어 작업을 하는데 이것은 수십 회 이상의 공정 과정을 거쳐 처음 한 드로잉이 그대로 보존 될 수 있게 완성 된다. 지판위에 드로잉을 옮기고 그것을 나이프 드로잉 한 후 코팅하고 오목하게 파진 홈에 물감을 넣기도 하여 표면에 롤러 질을 하거나 물감을 뿌려 표면을 만든다. 그리고 나서 다시 코팅 후 라인을 다시 정교하게 파내 물감 넣기를 수십 회 반복하여 좀 더 명확하고 깊은 드로잉 선을 표현한다. 이것이 바로 지판그림이다. 빠른 시간에 표현되는 감정을 드로잉에 고스란히 담아 지판 위에 나이프 드로잉 하는데 이것은 마음속에 있는 주관적인 심상이 변질되지 않게 본인의 감각을 판위에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다. 처음 전달된 드로잉의 선을 나이프로 그대로 표현하면서 판위에 롤러질을 하여 색을 입히고 다시 섬세하게 나이프로 홈을 파서 물감을 입히는데 이런 반복되는 과정 속에 본인의 감정을 전달하고 이것은 일종의 무의에 접근으로 본인에 의도된 반복이다. 이런 반복은 본인의 감정을 해소해 평정심에 도달하려는 의지이다. 수없이 반복행위를 통해 만든 지판그림들은 결국 하나의 작품으로 표현된다. 이것은 본인의 심상과 내면세계의 강렬한 충돌로 무의식 속에 가지고 있던 모든 감정을 의식과 통합하여 모든 에너지로 응집하여 밖으로 분출하는 작업이다. (작품1,2)

연구자는 사십구재 작업에서 나이프 드로잉(knife drawing)을 수없이 반복함으로써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

3)지판화(2009~2010)

위 지판그림 작업(2007~2008)은 모든 감정을 쏟아 내는 작업이었다. 그런데 모든 감정이 지나치게 많이 작품에 투영되다 보니 작품의 표현적인 문제 가운데 좀 더 계획적이고 절제가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다. 본인의 작업이

2009년 판화와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계기이다. 또 복수적인 이미지를 하나의 작품으로 만드는데 사용하는데 판화의 복수성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 이것은 복수적으로 찍어내는 이미지를 하나의 작품 안에 모두 사용해 다른 형상의 작업을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인에게 판화의 에디션이 몇 장인가?” 하는 에디션 넘버가 중요 하지 않다. 즉 한 작품 안에 얼마나 많은 판화로 찍어낸 이미지가 집적 되어 작품을 만들어 내느냐 가 중요한 것이다.(작품20)

본인은 드로잉 된 이미지를 가장 왜곡 없이 표현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던 중 판화가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판화를 선택하게 되었다. 짧은 시간에 끌어올린 역동적인 에너지를 고스란히 담아내는 드로잉과 판화의 간접판법 속성을 결부시켜 판화 속에 드로잉의 긴장감을 유지시켜 나갈 수 있다. 판화는 간접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판화가 2차 작업이기 때문이다. 판화는 그림의 공정과정을 직접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프레스기란 기계를 통해 표현되어지기 때문에 직접매체인 회화보다는 절제된 표현성을 보인다.

본인은 회화와 더 친밀한 드로잉을 표현 기법으로 사용하는데, 감정을 빠르게 전달하는 드로잉과 판화의 절제미를 어떻게 잘 어우러지게 표현 하는가에 중점을 두고 작업 하였다. 드로잉을 판에 그대로 옮겨 철저한 계획하에 판화의 공정을 통해 드로잉의 순수성과 근본적인 감각을 사라지지 않게 작업 할 수 있었다. 이것이 본인의 감정 전달에 용이한 드로잉과 지판화의 선택이 유이다. 이 모든 공정 가운데 간접판법인 지판화를 사용해 판화의 장점인 절제미를 얻을 수 있었다.

본인은 하드보드(hardboard)위에 드로잉 된 이미지를 옮기고 다시 나이프 드로잉(knife drawing)한다. 재료판의 특성상 얇은 니들로 점을 찍거나, 예리하게 긁기, 파내기, 찢어내기, 미세한 흔적이나 긁힘, 작은 얼룩들과 같은 흔적 까지 모두 표현 할 수 있다. 본인은 짧은 시간에 감정이 잘 전달되어야 하는 드로잉 작업을 하기 때문에 30도, 45도 나이프를 많이 이용해 작업 한

다. 라인뿐만 아니라 홈에 깊이, 라인의 섬세한 두께 등을 조절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드로잉의 생동감과 주관적 감정이 고스란히 전달 할 수 있도록 표현 하는게 주된 방식이고 우연히 종이에 겹겹이 벗겨진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작업에 이용한다. 또한 코팅할 때 우연히 만들어지는 얼룩도 작업으로 이용하는데 이런 것 들은 종이에 물성과, 요철[凹凸]이 어우러져 작품을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 본인은 지관화에 나타나는 종이에 물성을 이용해 작업하는 것인데 결국 이런 지관화를 선택하게 된것은 본인의 드로잉과 표현주 의적 느낌을 표현하기에 가장 잘 맞고 인간의 감정 전달에 용이하기 때문이다.(작품18,19)

3. 반복적 이미지와 행위

1) 이미지의 반복

일반적인 조형예술에서 정의하는 반복이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단위 형태를 2회 이상 반복하는 것을 칭한다.²⁰⁾같은 형태의 이미지가 모이면 시각적 특성에 의해서 강한 응집력을 보인다. 이미지의 반복은 판화의 복수성을 적극 이용해 화면의 확장으로 인해 시각적으로 전체를 인식하게 만드는 효과이다. 이것은 작은 이미지들이 모여 전체를 만들어 또 다른 형상의 이미지를 만드는데 이것은 이미지의 확장뿐 아니라 의미의 확장까지 가져온다.

본인은 같은 이미지를 이용해 작업하는데 있어서 각각의 이미지의 형태는 같으나 면밀히 살펴보면 모두 동일한 것이 없는 독자적인 개성을 넣은 이미지들로 반복되어있다. 본인에게 반복이란 같은 형태의 지속적인 나열이 아니라 그 형태안에서 변화를 수용하는 반복이라 할 수 있다. 형태 안에서 표출된 내용의 변화는 시간과 삶의 변화를 동시에 표현하려는 시도이다. 수많은

20) 윤민희. 새로운 조형예술의 이해. 예경. 서울2008. p94

하나의 이미지 반복은 동일 이미지를 표현함으로써 무의식 안에 있는 자아와 대면하는 것을 뜻하는데, 이것은 똑같은 ‘나’ 란 이미지를 반복하지만 결국 변화를 수용하는 서로 다른 자아들의 표현인 것이다. (작품5)

형태의 대상을 반복 표현되는 것은 그 이미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같은 이미지를 이용해 작업하는데 그 이미지는 바로 본인 자신인 ‘나’ 의 표현이다. 상실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 란 이미지를 계속 만들어 오리고 붙이고 쌓아서 고통스러운 감정을 해소하는 것은 본인의 의지가 담겨 있다. 이것은 본인의 마음속 고통을 달래기 위해 진행 되었던 작업이기 때문이다. 미술치료에서는 이런 반복적 이미지는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고, 위로받기 원할 때 나타난다고 한다.

2) 반복행위

반복행위는 형태의 반복과 작업 과정속의 반복으로 나타난다. 본인에게 반복행위는 작품 과정으로의 몰입을 나타내며 이것은 일종의 무의식 상태의 접근을 나타낸다. 이렇기 때문에 작품을 제작함에 있어서의 반복행위의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본인은 반복행위를 통하여 감정을 상기시키고, 상기시킨 감정을 콜라주로 집적하는 행위를 통해 고통을 없애는 의지를 보여 주려 하였다. 반복적인 행위와 행위를 통해 나온 결과물은 본인뿐 아니라 작품을 관람하는 관람자에게 까지도 평안에 이르게 도와주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반복적 행위는 작품 안에 행위의 기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묘한 변화들의 의지를 함축한 자아를 바라보는 명상의 공간으로 나타난다. 일본의 획기적 미술운동인 모노파의 창시자인 이우환(李禹煥, 1936년 ~)은 1970년대 회화작품<점으로부터, 1978>(도판6)과 <선에서, 1979>(도판7)에서 선을 긋고 점을 찍는 행위를 지극히 의식적으로 반복하였다. 그는 “일필일필(一筆一筆)은 모두 호흡과 리듬을 지닌, 살아있는 조용이어야만 한다. 그것은 필력을 살리

는 훈련을 쌓은 행위의 반복에 의해 얻어지게 된다. 이러한 제작의 영위는 회화를 상상한 우주의 퍼짐으로 이끌어서 자아를 그 가운데 소생시키려는 수업인 것이다.²¹⁾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반복적인 행위와 그것의 물질적인 결과를 작품의 일관된 보는 것과는 달리, 그 같은 행위 자체를 더욱 중시하고 있는 것이다.

철저하게 자연의 주기와 리듬에 맞춰 반복된 행위를 하는 볼프강 라이프(Wolfgang Laib, 1950~)는 유년시절부터 동양적 사유방식을 습득 하고 그 삶을 체험하였다. 그는 영적 초월의 세계를 추구하는데 특히 인간과 자연을 우주의 통일적 생명체로 보는 동양의 유기체적 세계관, 자연관을 제시한다. 그 중 반복된 행위의 집적으로 보여지는 그의 <Pollen from hazelnut, 1986>²²⁾(도판8) 작업은 동양 사상 가운데 특히 성장과 변화의 순환과 반복이라는 도(道)의 본질적 속성을 그대로 드러낸다.

또 한편 철저히 의식적인 반복의 구성으로 작업하는 존 배(John Bae, 1937~)는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 하나의 형상을 구성한다. 또한, 예술은 결과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1996>(도판9), <길의 무게, 1996 >(도판10) 존 배의 작품은 구조적이며, 요소들이 조금씩 복잡해 보이는 모습은 가장 단순한 요소들이 조금씩 변화를 거쳐서 만들어낸 결과 이다. 제작 과정에서 눈으로 볼 수 없으나 신비로운 정신적인 체험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그 작업을 통해 리듬과 생명력을, 강력한 움직임을 이끌어 내고 있다.

이렇게 반복적 행위의 흔적을 남기는 방법은 작가마다 기법과 의도, 효과의 차이가 있지만 공통된 점은 반복적 행위를 통하여 작가가 일종의 '무의'의 상태에 접근한다는 점이며, 보는 이에게도 그러한 효과를 가져 온다는 점이다. 마치 도교에서 선을 행하듯이 작가와 관람자는 신체적, 시각적 반복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자연의 상태에서 자신을 일치시켜 일종에 정신적 평정상태에 접근하게 된다. 그리하여 작품은 작가의 존재 자체에 투

21) 이우환. 여백의 예술. 서울. 현대문학. 2002

22) 국립현대미술관. 볼프강 라이프: 통로-이행 전시자료. 2003.07.09-2003.09.12

영이 되며 관람자는 그 같은 존재의 과정을 직접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²³⁾ 세 작가 모두 우연한 흔적의 기록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변화의 화면을 구성해내려는 신념의 자세가 보여 진다.

4. 콜라주와 집적 표현

1) 콜라주

콜라주 기법은 시대적 상황이 불안전 하고 현실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잠재 의식을 바탕으로 두고 현재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상황을 변화시키겠다는 생각에서부터 시작하였다. 이것은 예술의 환영과 실재(reality)에 관한 진위 논쟁을 발생시켰으며 예술가의 다양한 미적 형식의 재발견은 낳았다.²⁴⁾

본인의 콜라주 기법이 활용된 판화 작품은 전통 판화 양식에서 새로운 특성을 창출해 낸다. 프레스기의 크기적 제한이 있던 판화 작품은 콜라주로 인해 제한된 크기에서 벗어나 무한대로 확장 할 수 있었다. 본인의 작품이 판화 임에도 불구하고 클 수 있었던 까닭은 이것이다.

본인의 작품 안에 인간의 이미지 형상은 수많은 레이어를 만들며 이미지 스스로가 스스로를 가두어버린다. 가장 얇은 한지에 이미지를 찍어 이미지의 겹침으로 한지 콜라주를 한 것은 한 번에 그리거나 한번 찍어낸 그림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콜라주(Collage)는 2차적 평면그림에 종이나 천등의 여러 가지 3차원의 물질을 붙여 표현하는 방식으로 ‘폴로 붙이다’ ‘바르다’ 라는 뜻의 프랑스어인 Coller에서 유래된 말이다. 본인은 제일 얇은 한지에 지관화를 이용해 인간 이미지를 찍어 찍은 이미지를 오려서 콜라주 한다. 각각의 이미지가 중첩 되어서 그 이미지는 사라지기도 다른 이미지로 등장하기도 한다. 또한 이미지는 아래 붙여진 이미지와 다른 대상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23) 윤난지, 형태반복의 방법과 의미, 월간미술, 1992년 3월호, p107

24) 유로현대미술연구회, 현대미술 속으로, 예경, 2002, p119

이미지의 중첩표현은 그 안에서 공간의 깊이를 표현해 내고 인간들의 마음이 오간 흔적이 보여 진다. 본인은 콜라주 기법을 통해 인간의 감정 속 불안과 고통을 해소하려 하였다. 이 표현양식 덕분에 이미지가 겹쳐 때론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고 감정의 얼룩들이 생기기도 하지만 본인은 한 번에 캔버스에 모든 감정을 쏟아내는 작업을 하지 않고 회화가 아닌 각각의 객체 이미지를 볼 수 있는 판화로 찍어 오리고 붙이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이는 작품과정 속 부단한 노력과 열정을 관람자들에게 전해 그들의 불안과 고통까지도 작품을 통해 위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2) 집적

집적(集積)의 사전적 의미는 모아 쌓는 것이다. 본인은 고통을 안고 있는 인간의 이미지를 탐 형상으로 쌓아 작업을 하는데 이것은 모든 인간이 경험하는 불안과 고통을 집적하여 작품 안에 이입하는 과정이다. 불안과 고통이 이입된 이미지들을 집적해 다른 형상을 만들기 때문에 분산된 에너지가 하나의 작품으로 응집하게 된다. 결국 본인의 마음속에 있던 불안과 고통의 에너지를 모두 한 작품으로 모아 마음이 가벼워지길 바라는 것이다. 제일 얇은 한지에 찍은 이미지를 한 장 한 장 오려서 붙이고 그 위에 또 붙이며 다른 톤을 만들어 작품의 깊이를 만든다. 얇은 한지이기 때문에 그 층 들이 중첩해서 오는 감각적 느낌은 마치 몰아일체의 정신으로 집중하여 작가의 행위와 호흡이 고스란히 묻어난다. 이미지들이 집적 되면서 이미지와 이미지 사이엔 구별이 없어지고 하나로 녹아전체가 된다. 그러나 어느덧 이미지들은 다시 각자의 개별자의 이미지가 되고 집적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이미지는 얼룩과 더불어 또 다른 형상의 이미지로 변해간다. 이런 이미지의 집적으로 본인이 말하고자하는 것은 인간내면의 심층에 변화를 깊이 있게 대면하려는 의지이다.

5. 작품 설명

1) 사십구재 연작

첫 번째 사십구재(2007~2008)연작 작업에서 본인의 고통스런 마음을 들여다보고 작업을 하였다. 작품제작은 본인이 대상을 상실한 가운데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고통을 마주함으로써 평정심을 찾는 과정으로, 무의식속의 이미지를 의식화 하는 작업이다. 이 작업을 하는 과정 속의 본인은 고정관념 버리기와 가상의 죽음과 같은 애도의 시기를 보낸다. 이 두 가지를 실현한 사십구재 작업을 통해 고통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관람자들까지 심리적 안정과 평안을 희망하였다.

① 고정관념 버리기

상실의 고통 속에서 본인은 먼저 고정관념 버리기를 통해 사람이 변함을 받아들이는 시기를 갖게 된다. 이것은 누가 변했느냐가 문제가 아닌 인간이 변할 수 있다는 라는 전제를 받아들이는 시기로 고통 속에서 본인은 인간의 보편성을 깨닫게 되었다. 변함은 상실을 야기하고 상실은 고통을 만든다. 본인은 이 고통의 시간이 지나가고 평안이 오길 희망 하며 작업을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사십구재 작품의 동기이다. 본인 스스로가 만들어낸 고정관념을 버리고 내 자신의 무의식까지 내려가 나의 모든 상처를 고스란히 작품을 통해 전달 하고자 하였다.

② 대상의 가상 죽음과 애도

대상관계 심리학자 멜라니 클라인(Melanie Klein, 1882~1960)은 누구나 대상 상실의 고통을 겪는다고 한다. 이때 애도의 시기를 어떻게 견디느냐에 따라 인간은 한층 더 성숙하고 자아가 건강해 진다고 한다. 본인은 사십구재 작업을 통해 대상의 가상의 죽음을 만든 후 애도의 시기를 겪는다. 대상의 죽음은 곧 자신의 부분의 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죽었다고 생각하고 가상의 망자의 시간을 체험하며 또 한편으로 살아 존재하는 자로써

망자를 향해 슬퍼하고 안타까워했다. 이것은 클라인이 말하는 애도의 시간을 잘 보내기 위한 본인의 의도가 포함 된 것이다.

이 작품은 이별에 의한 상실에서 오는 고통을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 같은 작업이다. 본인이 작품 제목을 사십구재라 한 이유는 상실된 대상을 가상 죽음으로 만들어 놓고 죽은 후 사십구일동안 인간 세상을 정리하는 망자의 시간을 체험했기 때문이다. 죽은 지 사십구일이 될 때 극락이나 더 좋은 사후 세계에 들어가길 비는 마음에서 남아있는 인간은 ‘사십구재’ 제사를 지내주고 죽은 영혼은 살아 있을 때의 모든 것을 정리 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이 시간이 사십구일 걸린다 한다. 본인은 가상의 대상의 죽음을 통해 상실된 자아와에 고통 속에 남아 있는 자아를 빌어 좋은 삶, 고통에서 벗어나 좀 더 평안에 다가가 있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사십구재 작업을 했다. 또 본인은 상실의 고통스런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여 그 시간만큼은 애 통해 하자는 마음에서 작품에 사십구재란 제목을 붙이게 되었다. 이 작업을 통해 본인의 붕괴된 자아를 무의식 깊은 곳 까지 온전히 바라보고 슬퍼하며 애도해주고 이 시간이 지나면 불안과 고통이 사라지고 평안해 지길 바라는 작업을 하였다.

이전까지 본인은 페인팅 작업을 주로 하였는데 사십구재 작업에서는 드로잉의 감정과 감각이 고스란히 전달되는 지판그림 작업을 시도 하였다. 하드보드(hardboard)위에 나이프드로잉(knife drawing)을해 이미지를 새겨 파고 그 위에 셸락(shellac)으로 코팅 한 후 물감을 입혀 다시 코팅하고 이런 수십 번의 공정과정을 거치는 작업이다. 본인은 가장 감정이 잘 전달되는 드로잉을 통해 1000개의 ‘나’ 란 이미지를 만들었다. 이 ‘나’ 란 이미지는 동일한 ‘나’ 는 하나도 없는데, 이것은 나만의 고정관념을 깨고 인간이 변화됨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한 객체의 드로잉 마다 조금씩 다른 표현을 함으로 본인만의 독특한 표현방식으로 형태와 선을 변화 시키므로 본인의 느낌과 진실된 감정에 충실할 수 있었다. 이것은 무의식 깊은 곳에 억눌린 감정의 표현

의 시작으로 본인을 제대로 알아가는 과정이 되었다. 상실의 고통이 있기 전에 연구자는 모든 것을 스스로 받아들이며 인내하며 살아 갈 수 있다고, 본인을 제대로 모르고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결국, 이는 억눌렸던 마음이 사십구재 작업을 통해 거칠고 강력한 터치로 표출되었음을 통해 드러난다. 사십구재 작품 제작과정에서 끝없는 좌절과 인내를 반복했는데 결국 작업엔 비통한 아름다움이 표현되었다. 본인은 이 작업을 통해 스스로 굉장한 몰입 도가 생겼음을 알게 되었고 승화가 일어나 사십구재 작업이 끝날 즈음 반복과 집착이 감소함을 느끼게 되었고 본인 스스로 작업을 거치면서 감정을 해소 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 지판그림 작업은 본인의 감정을 드로잉적 형태와 선을 통해 파내고 오리고, 칠하는 치유의지의 표현방법이다. 오랜 시간의 공정을 통해 본인을 자각하고, 작품을 통해 보는이에게 희망으로 나아가게 도와주는 것이다. 이것은 본인이 말하는 미술치유의 확대로서 미술 작품을 만드는 사람 뿐 아니라 고통의 에너지를 쏟아 놓은 작품을 관람하는 관람자들의 무의식에 숨어있던 고통의 감정이 작품에 투사되어 해소 되는 가능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사십구재연작중 소제목 “너 언제까지 슬퍼할래?” 작품3은 이 시기에 본인의 감정을 그대로 담은 작업이다. 이 작업에서 손과 발 몸의 흔적만 표현했다. 손과 발을 하드보드(hardboard)위에 나이프드로잉(knife drawing)해서 오린 다음 판넬에 붙인 작업이다. 그리고 그 위에 셸락(shellac)으로 드로잉하고 흰색 아크릴물감으로 마무리 한 작품이다. 이작품은 얼굴이 없이 손과 발만으로도 인간의 고통과 슬픔을 전달하는 작품이다.

작품4는 ‘나’ 를 형상화해서 탑 이미지로 쌓은 작업이다. 동일한 나를 반복 표현하였고 부조 같은 형태를 취한다. 하드보드(hardboard)위에 나이프드로잉(knife drawing)을 정교하게 해서 셸락(shellac)으로 코팅한 다음 오목하게 파진 부분에 아크릴물감을 바르고 볼록한 면은 아크릴 물감을 입혀 롤러 질을 해 표면을 만든다. 이렇게 20회 이상 반복해 만든 작품이다.

작품5는 사십구재의 대표작품으로 본인을 애도하기 위한 작업이다. 이 작품은 1000개의 ‘나’란 이미지에 모든 고통을 투영시켜 표현하였다. 작품을 만드는 방식은 작품4와 동일한데 이미지를 쌓는게 아닌 이미지를 객체화시켜 천개의 나를 모두 다르게 표현했다. 작품은 설치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는데 쌓거나 나열하는 식으로 표현된다.

작품 6,7,8,9도 작품4와 동일한 방식으로 만드는데, 동일한 ‘나’를 표현하지만 작품5처럼 나를 많이 표현하지는 않는다. 조금의 ‘나’란 이미지 속에서 자아가 강해지고 있는 모습을 표현했다.

작품 10,11은 판넬에 오일 파스텔과 셀락(shellac)으로 드로잉을 하고 흰색 아크릴물감으로 마무리한 작품이다. 이미지는 깊은 산속에 ‘나’를 돌무더기처럼 쌓아놓은 형상이다. 오일파스텔과 셀락을 반복해 사용함으로써 배경에 감정의 울림을 표현하였다.



[작품1] 사십구재 - 나는 빨간 사람입니다. 지판에 혼합기법. installation .각 75x 45 cm. 2008



[작품2] 사십구재 - 너 언제까지 슬퍼할래?. 지판에 아크릴. installation. 각 21 x 80 cm. 2008



[작품3] 사십구재 -너 언제까지 슬퍼할래?
판넬에 콜라주. 혼합재료.
39 x 35cm. 2008



[작품4] 사십구재. 지판에 아크릴. 설치.
90 x 69 cm. 2008



[작품5] 사십구재. 지판에 혼합기법. 1000개. installation. 각 18x 6 cm. 2008



[작품5] 사십구재. 지판에 혼합기법. 1000개. installation. 각 18x 6 cm. 2008



[작품6] 사십구재. 지판에 아크릴. installation. 18 x 32cm. 2008

[작품7] 사십구재. 지판에 아크릴. installation. 18 x 32cm. 2008



[작품8] 사십구재. 지판에 아크릴. installation. 58 x 17 cm. 2008

[작품9] 사십구재. 지판에 아크릴. installation. 38 x 50 cm . 2008



[작품10] 사십구재. 판넬에 혼합재료. 45 x 60 cm. 2008

[작품11] 사십구재. 판넬에 혼합재료. 100 x 100 cm. 2008

2) 타인을 위한 경배 연작

이어서 두 번째 연작 작품은 타인을 위한 경배(2009~2010)이다. 미술이 가지는 치유적 가능성을 나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적극 확대함으로써 사람들을 이해하고 관람자가 나의 작품을 통해 평안을 얻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된 작업이다.

사십구재에서는 본인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진정한 자아를 알아가는 과정이었다면 타인을 위한 경배 작업은 나에게서 눈을 돌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작업이다. 불안과 좌절, 고통은 인간의 삶과 늘 함께 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런 감정이 예술로서 해소 될 수 있다고 생각해 타인을 위한 경배란 제목의 작업을 하게 됐다. 본인은 사십구재 작업에서 아픈 감정을 작품 안에 넣어 해소시킴으로써 미술치유를 경험했듯이 ‘타인을 위한 경배’에서는 모든 사람의 고통스러운 감정을 작품 안에 투영시킴으로써 작품을 관람하는 관람자들까지 공감과 투사적 동일시를 경험을 통해 감정을 해소 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진 작품이다. 더 나아가 타인을 위한 경배는 고통이나 삶의 애환으로 물들어 있는 인간의 형상을 반복해서 모든 인간의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감정을 작품에 고스란히 담아 타인의 고통을 위로 하는 작업이다. 본인은 미술이란 매체를 통해 감정 표현을 하고 살아가지만 일반인들은 감정을 흘려보내거나 마음에 묻고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다. 본인은 자신도 모르게 숨어 있던 감정이 본인의 예술 작품을 관람함으로써 공감을 하고, 그로 인해 관람자들의 감정이 해소 된다는 것을 치유의 확대 개념으로 본 것이다.

감정이입이 잘되는 나!
미묘한 감정들 간의 충돌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

누군가의 아픔이 고스란히 전달되고
수많은 감정들이 주는 무게와 압박감
나는 누군가를 위해 기원하기 시작한다.

2010년 작가 노트 중에서

이런 마음이 관람자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져 관람자의 무의식 안에 있는 고통의 마음이 만져져 불안과 고통이 상쇄 된다. 인간에게 소통은 공감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준다. 그 공감은 관람자들의 감정을 투사시켜 강한 정서적 반응을 보이게 하고, 이것은 본인이 의도한 관람자들의 무의식 안에 있는 불안과 고통을 내면위로 끌어 올려 치유를 할 수 있게 되는 가능성을 보는 것이다. 인간은 고통의 마음이 멀어지면 평정심에 이르고 그 때에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항상 고통과 함께 하는 인간의 형상을 탐으로 쌓아 좀 더 나은 삶을 갖도록 기원하는 본인 작품의 주된 목적이다. 짧은 시간에 드로잉 하여 이차적 매체인 판화(간접매체)를 통해 인간의 무의식속에 있는 고통과 불안을 오랜 공정과정으로 작품 안에 고스란히 전달 한 후 반복과 집적된 이미지로 고통을 해소시킨다. 결국 인간의 인고의 과정 속에 새로운 기쁨,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담겨있는데, 이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관람자들의 경험이 소통하고 그로인해 심리적 동일시가 일어나 관람자들의 마음까지도 작가가 만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작품12,13,14는 하드보드(hardboard)위에 나이프 드로잉(knife drawing)해 지 판화로 만든 작품이다. 이 작품은 인간의 나체 드로잉을 탐의 형상으로 표현한 것이며 나이프 드로잉을 깊게 해서 두꺼운 선의 심한 요철[凹凸]을 통해 감정이 덩어리 채 옮겨진 것처럼 보여 지는 작품이다. 빠른 시간에 쏟아 부은 감정이 작품에 전달되므로 관람자에게 고통이 그대로 느껴지게 하는 작품이다.

작품15는 포맥스위에 나이프 드로잉을 해서 찍은 작품이다. 이 작품은 트레팔지 위에 찍어 여러 장의 트레팔지를 중첩시켜 투명도를 이용해 설치된 작품이다. 이 작품도 인간을 쌓아 표현하지만 돌탑의 위에서 본 듯한 이미지로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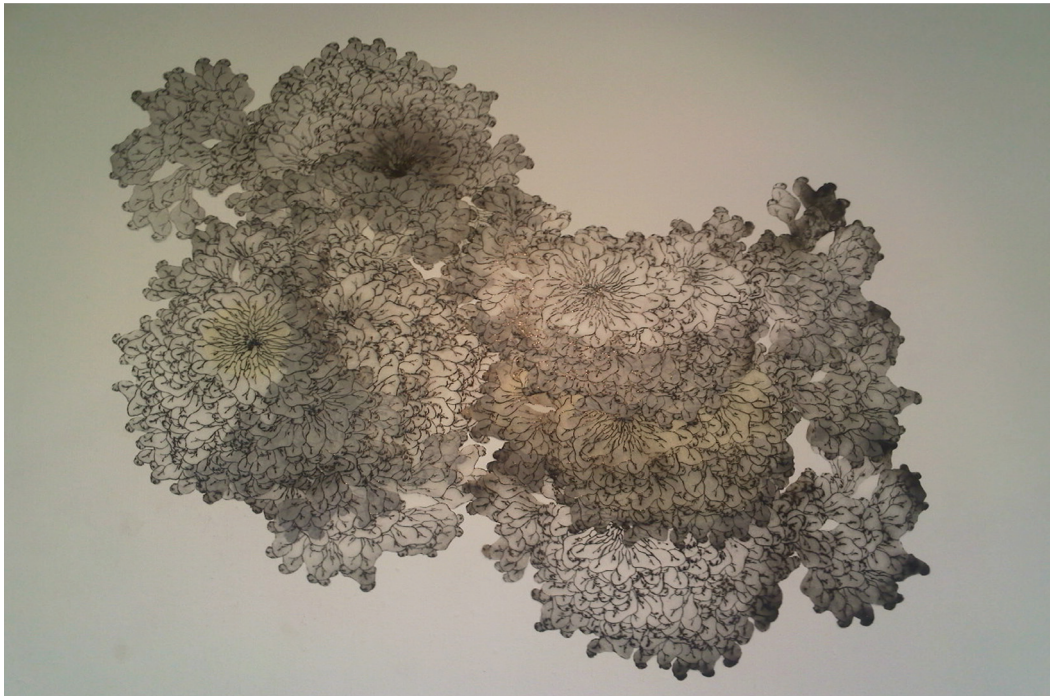
작품20,21,22,23,24는 사람의 알몸형상을 드로잉해 이미지로 탐을 표현한 것이다. 하드보드위에 나이프 드로잉을 한 후 판화로 찍기 때문에 종이의 물

성과 요철[凹凸]에 의해 알몸이미지에 감정이 전달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의 형상을 무수히 많이 찍고, 오리고, 콜라주하고, 나열하고, 집적해 한 작품으로 표현하였다. 많은 이미지가 중첩되면서 표현되는 감정의 덩어리들이 작품 윗면으로 올라갈수록 감정이 해소되듯 절제된 이미지로 전달된다. 작품 20,22는 앞에서 본 탐의 이미지이고 작품21은 탐 꼭대기에서 아래를 내려다본 형상이다. 작품 23,24는 이미지의 숫자를 줄여 감정이 절제된 형상을 제시해 군더더기를 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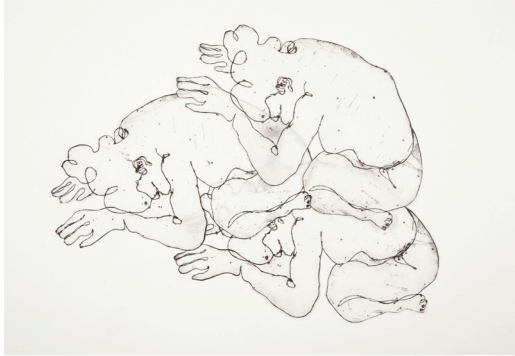
작품25,26,27,28은 제일 얇은 순지에 인간의 나체를 드로잉 한 작업이다. 인생에서 느끼는 고통스러운 감정을 순화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인간의 벌거벗은 보편적 형상을 집약시켜 드로잉으로 제시하고 있다.



[작품12.13.14] 타인을 위한 경배. collagraphy. 78 x 107cm. 2009



[작품15] 타인을 위한 경배. intaglio. variable installation. 2009



[작품16,17]타인을 위한 경배. collagraphy on Korean paper. variable installation. 2010



[작품18,19] 타인을 위한 경배. collagraphy on Korean paper. 10 x 10cm.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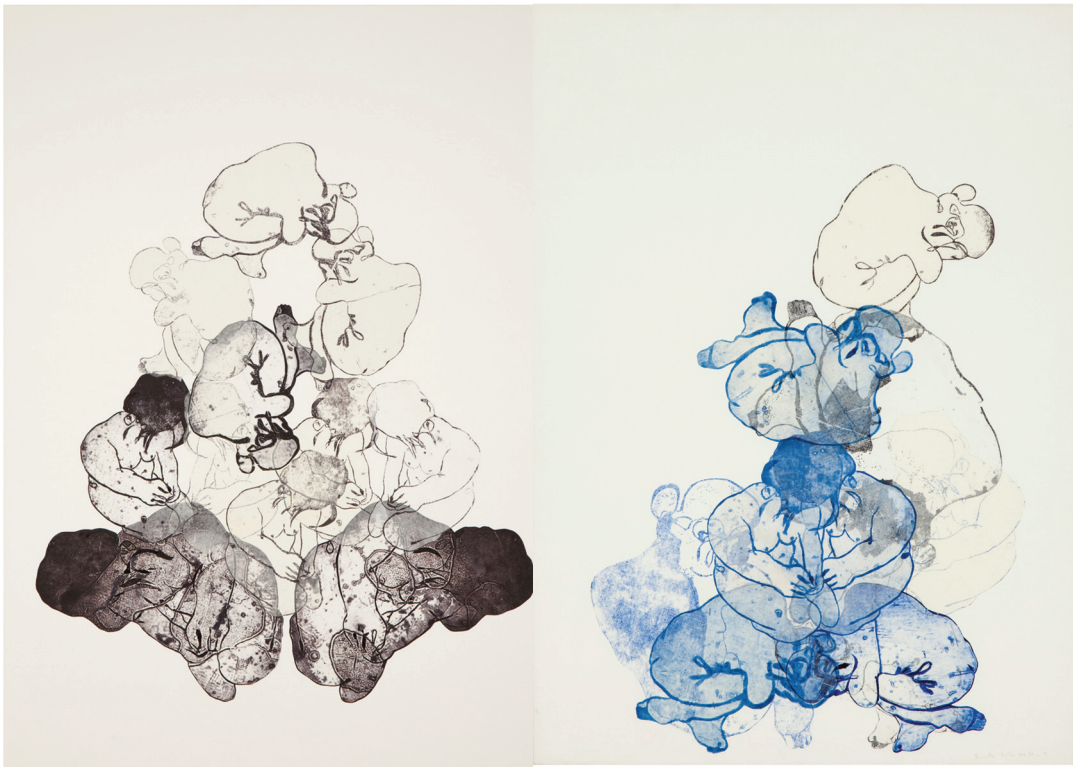
[작품20] 타인을 위한 경배. collagraphy on Korean paper. 245 x 420cm. 2010



[작품21] 타인을 위한 경배. collagraphy on Korean paper. 149 x 208cm, 2010



[작품22] 타인을 위한 경배. collagraphy on Korean paper. 208 x 149cm. 2010



[작품23]타인을 위한 경배. collagraphy on Korean paper. 100 x 70cm. 2010

[작품24]타인을 위한 경배. collagraphy on Korean paper. 80 x 56m. 2010



[작품25. 26. 27. 28] 타인을 위한 경배. drawing on Korean paper. 30 x 30cm. 2010

IV. 결 론

인간은 늘 관계 속에서 태어나고 관계의 그늘 아래 살아간다. 그리고 관계가 상실 될 때 불안과 좌절에서 오는 고통을 경험한다. 사람들은 이런 고통이 올 때 그 감정을 살짝 흘려보내던지 건드리지 못할 어떤 곳에 숨겨 둔다. 본인은 이렇게 숨기고 싶은 마음속에 감정을 밖으로 끄집어내어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작업을 하였다. 작업을 통해 인간의 고통과 마주했고 그 고통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닌 인류의 보편적인 고통임을 알게 되었다. 우리말에 “마음에 담아두면 병이 된다” 는 말이 있는데 본인은 우리가 좀 더 낫은 삶,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음을 표현하며 살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본인의 작업은 고통 속에 희망의 작업으로 우리 모두가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밝은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 본인의 작업은 인간의 ‘마음 들여다보기’ 부터 시작 하는데 이것은 ‘미술로 마음 표현하기’ 전 단계라 생각한다. 사람들이 아무리 머리로 깨닫고 알게 된다 하더라도 무의식 깊은 곳에 있는 어두운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고통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 본인은 미술을 통해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 내면에 있는 고통과 아픔을 형상화시켜 해소 하고 좀 더 평안한 삶을 희망하는 작업을 하고자 하였다.

본인의 작업이 자연스럽게 치유와 결부 되어 있기 때문에 미술치유를 작품 근거로 살펴보았다. 미술치유는 말로 다 표현 할 수 없는 비가시적인 형상을 통해 눈에 보이게 표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인간의 감정, 느낌, 정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이렇게 무엇인가 창조하고 표현함으로써 정서의 표출과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인은 카타르시스가 그림을 관람하는 관람자들에게도 똑같이 전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작업을 했다. 이것은 작품을 통한 소통과 공감으로 심리적 동

일시 될 때 관람자들에게도 예술을 통해 인간의 고통이 해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인은 2007~2010년 작업 ‘사십구재’ 연작과 ‘타인을 위한 경배’ 연작의 창작 과정을 통해 몸, 마음, 정신을 치유시키고, 내면의 고통이라는 감정과 대면함으로써 의식수준의 향상과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보이지 않는 잠재력의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또한 두 가지 연작 작업을 통해 미술이 본인뿐 아니라 관람자에게 까지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두고 작업 하였다.

결국, 본인에게 미술은 인간의 ‘희망’ 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 논문을 시작하면서 본인은 불안이나 고통의 감정을 미술작품 안에 표현함으로써 내적 상처를 치유하고 보는 이까지도 감정이 해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글을 쓰게 되었다. 인간의 정형화 되지 않는 근본적인 감정을 추상적인 미술로 표현하고 다시 언어로 객관화시켜 글로 표현하기가 어려웠으나 이를 통해 스스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본 논문을 통해, 앞으로 본인은 인간이 삶속에서 경험하는 감정을 더 다각적으로 심도 있게 작업하려한다. 그것은 지금까지 다루어온 고통의 감정만이 아닌 인간 내면에 있는 감정인 기쁨, 희망, 사랑, 슬픔 등 여러 가지 확대된 감정을 표현하고자 하려 하는 것이다. 본인은 인간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미술을 계속함으로써, 본인 뿐 아니라 삶 속에 인간들을 이해하고, 모든 이에 게 희망을 갖게 하는 작업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연구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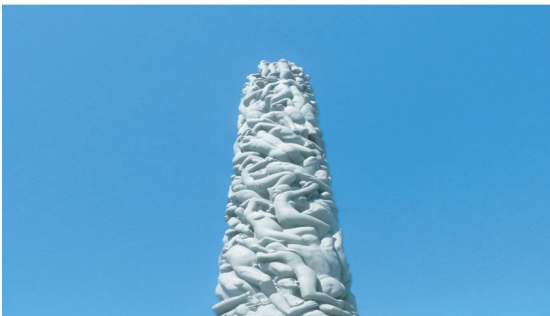
참고 도판



[도판1]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도판2] 프로그네르(비젤란) 조각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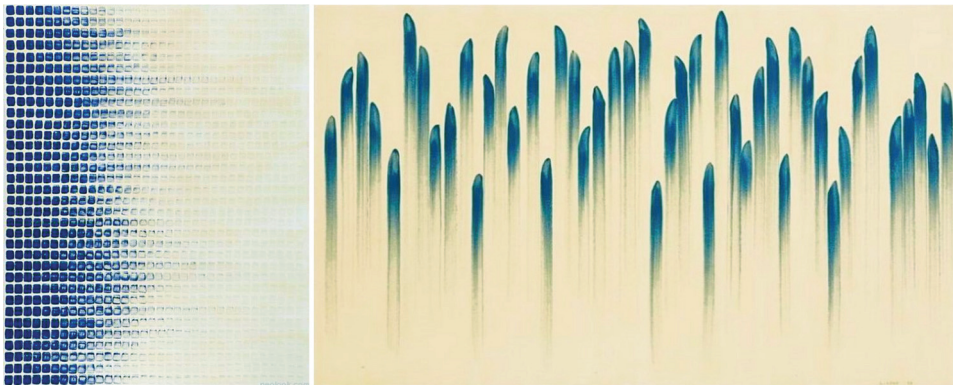
[도판3] 모노리텐. 화강암 군상. 173m. 1917~19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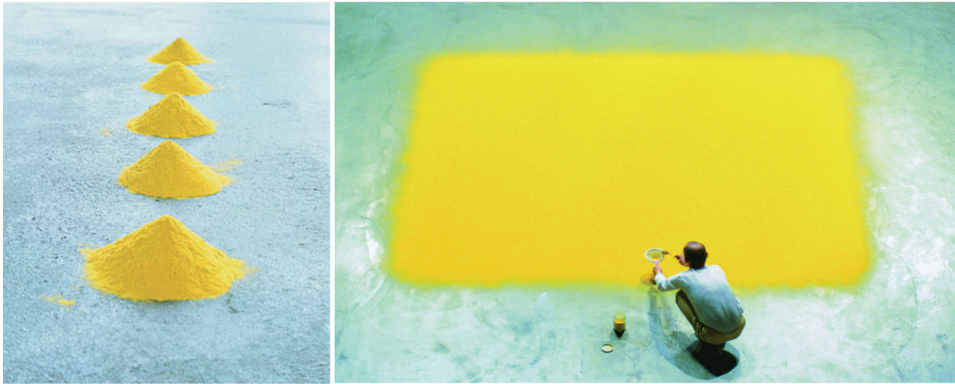
[도판4] 마이산 돌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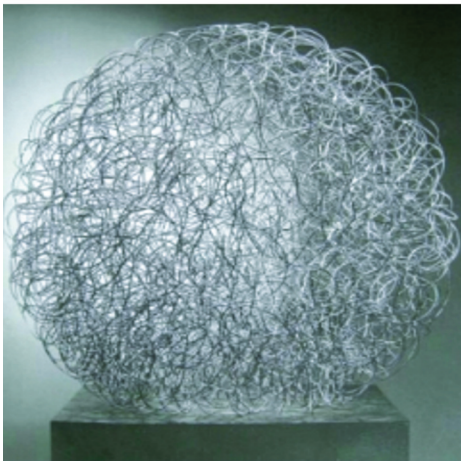
[도판5] 자코메티 드로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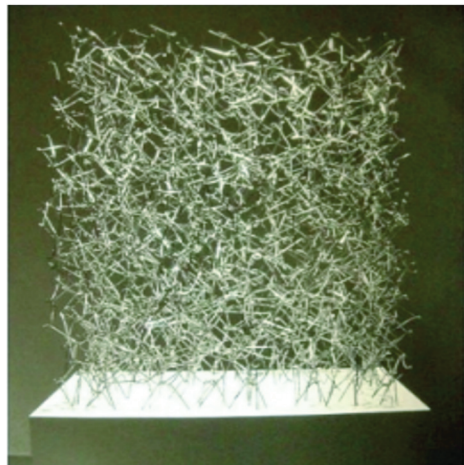
[도판6] 점으로부터.1978 [도판7] 선에서.1979



[도판8] Pollen from hazelnut.1986



[도판9] 아직 태어나지 않은. 1996



[도판10] 길의 무के. 1996

참고 문헌

- 교육 인적 자원부. 미술과 교육 과정. 대한 교과서(주). 2007
- 김진숙. 샤머니즘과 예술치료. 학지사. 2010
- 김복영. 현대미술연구. 정음문화사. 1985
- 김연주. '타인을 위한 경배' 전. 도윤정 개인전. 전시도록 중 인용
- 2010.10.14-2010.10.20
- 곽남신. 한국 현대 판화사. 서울.재원. 2002
- 한나 시겔. 이재훈 역. 멜라니 클라인의 정신분석학. 한국심리 치료 연구소. 1979
(Hanna segal, Melanie klein, (New York:The Viking press, 1979)
- 박영란, 미술에 있어서 상호작용성의 기원의 의미. 현대미술관 연구. 제 13집
국립 현대 미술관. 2002
- 박이문. 예술철학,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6
- 발터벤야민. 발터벤야민의 문예이론 반성완편역. 민음사. 2006
- 볼프강 라이프: 통로-이행 전시자료. 국립현대미술관 2003
2003.07.09-2003.09.12
- Snyder. Odle. and Hackman. 1999:Snyder. Taylor et al. 2001
- 이우환. 여백의 예술. 현대문학. 서울. 2002
- 윤난지. 형태반복의 방법과 의미. 월간미술. 1992년 3월호
- 윤난지. 현대미술의 풍경. 한길아트. 2005
- 윤현섭. 예술심리학 을유문화사. 1982
- 윤민희. 새로운 조형예술의 이해. 예경. 서울. 2008
- 유로현대미술연구회. 현대미술 속으로. 예경. 2002
- 주리아. 미술치료학. 학지사. 2010
- 지그문트 프로이트. 정신분석 입문/꿈의 해석. 김양순 옮김. 동서문화사. 2007
- John Berger. Way of seeing. 서울. 동문선. 1993
- 칸딘스키. 권영필 옮김. 예술에서의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열화당. 2000
- 강수미. 테크놀로지 사회에서의 예술 조건:
발터벤야민의 '기술(Technick)'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미학예술학회. 2005
- 김의숙. 강원도의 돌탑신앙. 강원도 민속학회. 1992
- 권선정. 비보풍수와 민간신앙 : 석산의 돌탑경관을 중심으로. 지리학연구. 제

37권 4호

- 김문준. 불안심리의 조형적 표출과 자기치유에 관한연구. 석사학위 논문. 홍익대학교. 서울. 2004
- 김세은. 인간의 존재론적인 침잠성의 대한 상상 연구. 석사학위 논문. 홍익대학교. 서울. 2008
- 김애희. 창작을 통한 자기치유에 관한연구.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2003
- 김미진. 판화의 반복형상에 있어서 이미지와 의미의 확장. 박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서울. 2005
- 권지현. 오브제를 통한 반복과 집적의 조형성연구. 석사학위 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서울. 2010
- 김규남. 판화에서의 콜라주 기법 활용연구. 석사학위 논문. 홍익대학교. 서울. 2008
- 김남영. 판화의 드로잉(Drawing)적 구현 문제. 석사학위 논문. 홍익대학교. 서울. 2003
- 남궁량. 현실과의 소통에 관한 사진이미지와 오브제 표현연구. 홍익대학교. 서울. 2005
- 안광수. 구스타브 비젤란 연구. 석사학위 논문. 홍익대학교. 서울. 2003
- 윤석길. 구스타프 비젤란의 작품세계 연구. 석사학위 논문. 건양대학교. 2006
- 임인경. 대상 관계이론에 비추어 본 미술치료에 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2004
- 엄익훈. 현대 조각에 나타난 집적, 증식의 표현기법.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2008
- 이승원. 생명문화지수, 누구에게 무엇을 말할 것인가?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2010
- 최유희. 희망척도의 타당화 연구. 석사학위논문. 카톨릭 대학교. 2008

ABSTRACT

A Study about Psychological Stability through Fine Art

- About my works -

Do Yun Jeong

Dept. of printmak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Fine art is a kind of art that pursues a formative beauty by expressing the meaning and experiences of life. Fine art has a communicative function that makes people understand each other with it. And it also has a philosophical characteristic that lets an artist know about himself or herself and the world. I think fine art represents the flexible aspect of the human mind deeply and makes me know about myself and communicate with other people. It also has a positive role that helps people regain their psychological stability by moving the mind of mine or other people.

I had experienced the creative formativeness, the function of psychological therapy of fine art and how it can have impact on human life during the period of working '49 days of worship' and 'worship for you' from 2007 to 2010. And then I could relieve my anxiety and pain, and find it can affect on the audiences who appreciate it.

While I worked focusing on the fact that fine art is related with a

psychological therapy. Through the long time of working fine art process, I tried to express all my painful feelings to '49 days of worship' and 'worship for you'. So I could reduce my anxiety and pain, and I also hoped other people who enjoy them relieve their negative feelings.